

2020년 5월 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연초 대비 상승 전환 성공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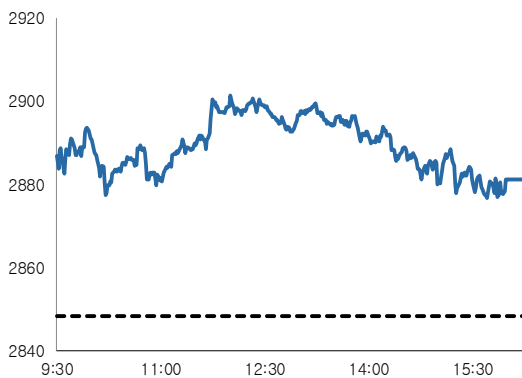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3일 연속 장 후반 매물 출회

미 증시는 현재 진행중인 경제 재개 및 양호한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기대 상승 출발했으나 고용 불안이 부각되자 일부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이 축소. 그런 가운데 하원 의장이 5 번째 코로나 부양정책을 다음주에 논의 하겠다고 언급하자 재차 상승폭이 확대되며 나스닥이 연초 대비 상승 전환. 오후 들어서는 밸류 부담이 높아지며 매물 출회되자 상승폭이 축소되며 마감(다우 +0.89%, 나스닥 +1.41%, S&P500 +1.15%, 러셀 2000 +1.58%)

미 증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 기업인 페스틀리(+45.68%)와 온라인 송금 서비스 기업인 페이팔(+14.01%)의 양호한 실적과 그에 따른 급등으로 기술주와 카드 회사들이 상승을 주도. S&P500 기준 올 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7.8% 감익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온라인 기반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은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야기. 한편, 나스닥은 연초대비 상승 전환에 성공. 특히 아마존(ytd +28.13%), 넷플릭스(ytd +34.91%)은 물론 MS(ytd +16.42%), NVIDIA(ytd +29.57%)등이 이를 주도. 결국 시장은 경제 재개를 빌미로 변화된 환경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유동성 쏠림 현상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음.

여기에 중국의 4 월 수출이 달러화 기준 전년 대비 3.5% 증가하자 경제 재개 이후 경기 회복 기대를 더욱 높임. 더 나아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5 차 코로나 부양책 추진을 다음주부터 재개 한다고 발언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 그러나 중국의 수출 증가는 지난 1 분기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수출이 한꺼번에 몰리며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 하원의 5 차 부양 정책 중 주 정부 등에 대한 추가 예산 배정을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 여기에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또 다시 장 후반 차익 매물 출회. 한편,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기술주는 상승이 제한된 가운데 하락폭을 키웠던 코로나 피해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는 등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특징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0.01	1,928.61	홍콩	홍콩	-0.65	23,980.63	-0.65
KOSDAQ	+1.48	668.17	영국	영국	+1.40	5,935.98	+1.40
DOW	+0.89	23,875.89	독일	독일	+1.44	10,759.27	+1.44
NASDAQ	+1.41	8,979.66	프랑스	프랑스	+1.54	4,501.44	+1.54
S&P 500	+1.15	2,881.19	스페인	스페인	+0.89	6,730.90	+0.89
상하이종합	-0.23	2,871.52	그리스	그리스	+0.30	602.47	+0.30
일본	+0.28	19,674.77	이탈리아	이탈리아	+0.50	17,245.04	+0.5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클라우드 서비스 업종 급등

모더나(+8.66%)는 FDA가 코로나 백신 2단계 임상을 승인하자 상승했다. 반면 6월부터 백신 임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던 화이자(-3.07%)는 하락했다. 차량 공유 업체인 리프트(+21.67%)는 매출이 예상을 상회하자 급등 했다. 우버(+11.18%)도 동반 상승 했다. 다만 우버는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시간 외로 7% 가까이 상승 중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업체인 패스틀리(+45.68%)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등했으며, 클라우드플레어(+18.32%)와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회사인 트빌리오(+39.62%)도 동반 상승했다. 다만 장 마감 후 클라우드플레어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시간 외로 10% 넘게 급락 중이다.

한편, 온라인 송금 업체인 페이팔(+14.01%)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등 했으며 모회사인 이베이(+1.03%)도 동반 상승했으며 비자카드(+2.20%), 마스터카드(+2.21%)도 강세를 보였다. 경제 재개 기대 확산으로 부킹닷컴(+4.71%), MGM(+7.33%), 디즈니(+4.65%), 콜스(+7.51%) 등도 강세를 보였고 델타항공(+3.24%), 보잉(+5.57%) 등은 승객 이동이 줄어든 대신 화물이 그 대체제로 이용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공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48%	대형 가치주 ETF(IVE)	+0.94%
에너지섹터 ETF(OIH)	+3.89%	중형 가치주 ETF(IWS)	+1.75%
소매업체 ETF(XRT)	+0.61%	소형 가치주 ETF(IWN)	+1.67%
금융섹터 ETF(XLF)	+2.35%	대형 성장주 ETF(VUG)	+1.58%
기술섹터 ETF(XLK)	+1.50%	중형 성장주 ETF(IWP)	+1.8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12%	소형 성장주 ETF(IWO)	+1.30%
인터넷업체 ETF(FDN)	+2.69%	배당주 ETF(DVY)	+0.84%
리츠업체 ETF(XLRE)	+0.89%	신흥국 고배당 ETF(DEM)	+0.76%
주택건설업체 ETF(XHB)	+1.1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2%
바이오섹터 ETF(IBB)	+0.13%	미국 국채 ETF(IEF)	+0.61%
헬스케어 ETF(XLV)	-0.01%	하이일드 ETF(JNK)	+0.26%
곡물 ETF(DBA)	+1.39%	물가연동채 ETF(TIP)	+0.63%
반도체 ETF(SMH)	+0.91%	Long/short ETF(BTAL)	-0.5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82.49	+2.47%	-2.47%	+7.63%
소재	322.59	+2.13%	-1.21%	+4.08%
산업재	520.17	+1.14%	-4.09%	-1.24%
경기소비재	936.51	+1.34%	-2.02%	+10.87%
필수소비재	582.40	-0.41%	-2.54%	-1.70%
헬스케어	1,151.26	-0.05%	-0.93%	+4.67%
금융	361.68	+2.22%	-4.40%	-2.02%
IT	1,642.45	+1.52%	+2.10%	+9.57%
커뮤니케이션	171.53	+1.56%	+0.51%	+9.21%
유틸리티	279.48	+0.44%	-3.86%	-5.37%
부동산	202.97	+0.85%	-3.63%	-3.2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9% MSCI 신흥 지수 ETF 는 0.81% 상승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19.6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3 일 연속 장 막판 차익 매물을 내놓으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체력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고용 불안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외국인의 매물 출회를 예상케 한다는 점 또한 부정적이다. 더불어 미 증시 상승 요인들 중 개별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과 중국의 수출 개선 등은 전일 한국 증시에 선반영이 되었다는 점 또한 부담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 후 상승분을 반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간 다음 주 전화 통화를 통해 1 단계 무역협상 이행 문제를 논의 한다는 발표되었다. 이는 지난번 합의 결과에서 6 개월 마다 논의하기로 결정했던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영향은 크지 않다. 오히려 트럼프가 이날 “중국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협상을 깰 수 있다” 라고 언급하는 등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점, 폼페이오가 “정확상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은폐 조작이 있었다” 라고 주장하며 마찰이 지속된 점은 부담이다. 결국 한국 증시는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매물 출회를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미 증시 특징처럼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 고용불안 지속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주(384.6 만건) 보다 감소한 316.9 만건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예상치(304.1 만건)을 상회했고, 7 주 동안 3,300 만건 이상 증가해 고용 불안은 지속되었다.

4 월 미국 대량 해고자수는 전월(22 만 2,288 건) 보다 크게 증가한 67 만 1, 129 건을 기록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등하다 결국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중국의 4월 수출입 동향에서 원유 수입이 지난 3월 보다 증가했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장중 급등을 보이기도 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사우디가 6 월물 원유 수출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그러나 장 중 미국이 사우디에 있는 군사력을 감축한다고 발표하자 이란과의 마찰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며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되며 결국 하락 전환했다. 더불어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또한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고용불안이 지속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실업률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한편,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경기 회복이 V 자 곡선을 그릴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 점도 영향을 줬다. 유로화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며, 엔화는 중국의 양호한 수출입 통계의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신규실업 수당 청구건수가 3 백만건 이상 증가하는 등 여전히 고용불안 우려가 확산되자 하락했다. 더불어 데일리 샌프란 시스코 연은 총재가 “V 자형 경기 회복은 없다” 라고 주장하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경제 바닥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나 회복의 형태는 느리고 울퉁불퉁 할 것이다” 라며 실제 회복기간은 느려질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금은 고용 불안 우려가 지속되며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67% 철근은 1.61%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23.55	-1.83	+25.00	Dollar Index	99.870	-0.22	+0.86
브렌트유	29.46	-0.87	+11.25	EUR/USD	1.0831	+0.33	-1.13
금	1,725.80	+2.21	+1.87	USD/JPY	106.28	+0.15	-0.84
은	15.590	+3.83	+4.12	GBP/USD	1.2363	+0.11	-1.83
알루미늄	1,485.00	+0.37	-0.64	USD/CHF	0.9731	-0.18	+0.81
전기동	5,274.00	+1.46	+1.65	AUD/USD	0.6492	+1.44	-0.31
아연	2,003.50	+1.44	+3.30	USD/CAD	1.3992	-1.09	+0.34
옥수수	318.00	+1.19	-0.63	USD/BRL	5.8468	+2.29	+9.56
밀	522.50	+0.97	-0.33	USD/CNH	7.0932	-0.51	+0.16
대두	844.25	+1.41	-1.29	USD/KRW	1225.00	+0.24	-0.10
커피	109.00	-1.45	+2.54	USD/KRW NDF1M	1219.60	-0.76	+0.48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635	-6.85	-0.48	스페인	0.817	-3.20	+9.90
한국	1.470	-4.50	-11.00	포르투갈	0.940	-2.80	+12.90
일본	0.005	+2.40	+3.50	그리스	2.170	+0.80	+1.50
독일	-0.545	-3.80	+4.10	이탈리아	1.916	-5.70	+15.60